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보도자료

문자로 세계와 교류하고
문자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6. 7. 7.(화) 10: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	책임자	부장	이시종	032-290-2045
		담당자	대리	김동현	032-290-2014

한글, 샹폴리옹의 생가에서 세계문자와 만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7월 3일 프랑스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서 한글 교류전 개막

- 7월 3일~10월 11일까지《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展 개최
- 문자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은 7월 3일 프랑스 피작시(Figeac, France)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해외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불문 제목: Hangeul, la volonté d'un roi)》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프랑스 현지에서 선보이는 해외교류전으로, 조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국 문자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7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프랑스 측에서 필리프 랑드헝(Pilippe landrein) 피작 시장, 셀린 하미오(Celine Ramio)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장, 그리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김명인 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시 개막을 함께 축하하며, 문자를 매개로 한 양국 문화교류의 의미를 공유했다.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은 '문자'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전시다. 전시는 한글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한글이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확산되어 온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문자가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한 사회의 지식, 소통,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매개임을 조명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처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적극 협력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해례본(영인본)을

통해, 프랑스 관람객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깊이 있게 알리게 된다.

또한 전시를 통해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관람객에게 한국 문자문화의 깊이와 독창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피작시는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의 주역인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의 고향으로,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문자와 기록문화를 다루는 대표적인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교류전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한국과 프랑스가 문자를 통해 문화적 접점을 넓히는 의미를 지닌다.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세종의 꿈에서 출발해 오늘날 세계인이 주목하는 문자문화의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전시가 프랑스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자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깊이 있게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문자 전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며, 한국 문자문화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문자문화 연구와 교류의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ㅇ **전 시 명:**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Hangeul, la volonté d’un roi)
ㅇ **기　　간:** 2026. 7. 3.(금) ~ 10. 11.(일)
ㅇ **전시장소:**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프랑스 피작시)
ㅇ **전시주제:** 문자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ㅇ **전 시 품:**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Printemps Parfumé>(불어판 춘향전) 등

붙임 1. (참고) 설명 자료
2. 이미지 자료 1식. 끝.

붙임 1 **[참고] 설명 자료**

□ 전시 구성

○ **(1부) 인쇄술의 나라, 한국**
- 한국 인쇄문화의 형성과 발전 소개

○ **(2부) 문자의 나라, 조선**
- 문자와 삶이 어우러진 조선시대의 역사를 소개하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발전에 대해 조명

○ **(3부) 오늘을 쓰는 문자, 한글**
- 15세기 창제된 한글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현대 한국인 일상 및 문화 전반에 자리 잡은 문자임을 소개

○ **(4부) 문자, 두 나라를 잇다**
-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문자'를 통해 조명

□ 주요 전시품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조선 1796년, 22x34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오륜행실도** 1797년 조선, 19.2x32.0cm, 국립세계문자박물관	**Printemps Parfumé** **(불어판 춘향전)** 1892년, 8×13.3cm,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소개

○ **공식명칭:** Musée Champollion-Les Écritures du Monde

○ **설립연도:** 1986년 설립(당시 대통령인 프랑스와 미테랑에 의해 추진) 2007년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

○ **위　　치:** Pl. Champollion, 46100 Figeac, France(프랑스 피쟉시)

○ **소　　개:**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Jean-François Champollion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개관. 샹폴리옹을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문자 체계의 역사와 발전을 소개하는 전문 박물관. 세계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자와 기록 문화를 통해 인류 문명의 흐름을 조망함

○ **홈페이지:** https://musee-champollion.fr/

붙임 2 이미지 자료



[사진1] 개막식 현장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인사말



[사진2] 개막식 현장

(좌)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우) 필리프 랑드헝(Pilippe landrein) 피쟉 시장



[사진3] 개막식 현장



[사진4] 프랑스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외관



[사진5] 전시 포스터